

# 새 mon 하위 next-call이 시작될 때마다 Mon 하위 next-call 옵션이 손실되는 해결 방법

## 목차

[문제](#)

[솔루션](#)

[관련 Cisco 지원 커뮤니티 토론](#)

## 문제

이 문서에서는 통화 캡처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모니터 가입자 다음 통화 설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니터 가입자 다음 호출이 실행될 때마다 해당 명령의 이전 실행에 대한 설정이 손실되므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 중인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 옵션을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특히 통화 시작 시 트러블슈팅이 발생한 경우, Speedy Gonzales와 같은 모든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솔루션

모니터 가입자 메뉴 옵션 방식을 사용하고 옵션 F) Next-Call을 선택하고 캡처를 시작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다음 Escape key ONCE를 누릅니다. 메뉴에서 다시 F를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한 모든 옵션이 계속 적용되고 원하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고 수집되기 시작합니다. Escape 키가 시스템 프롬프트로 다시 돌아가는 사고로 연속하여 두 번 적중된 경우 이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하여 추가 캡처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캡처될 가능성이 낮은 특정 유형의 통화를 캡처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적은 양의 eHRPD(Evolved High Rate Packet Data) 트래픽과 더 많은 양의 3G MIP(Mobile IP) 트래픽을 전달하는 노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eHRPD 통화의 백분율은 MIP에 비해 낮으며 eHRPD 통화를 캡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화는 MIP 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되므로 "o) Next-EVDO-RevA Call" 옵션을 사용하면 두 통화 유형을 모두 캡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을 기억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HRPD 통화가 도착한 컨텍스트에서 시작한 다음 모니터 가입자를 실행하고 다음 통화를 선택한 다음 현재 컨텍스트에서만 통화를 캡처하는 제한 컨텍스트에 대해 "L"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컨텍스트는 mon 하위 통화가 방금 시작된 컨텍스트입니다. 그런 다음 Esc 키를 누르고 Next-call을 다시 선택하면 eHRPD 통화만 캡처됩니다. 필요한 만큼 반복합니다.

제한 컨텍스트 옵션의 단점은 다른 컨텍스트를 통과하는 통화에 대한 패킷(예: PGW와의 프록시 MIPv6 교환이 발생하는 이그레스 컨텍스트)이 캡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일반 모니터 가입자 다음 통화 및 다음 통화 변종의 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